

환영합니다!

저는 곽 경수 목사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시 3:8)고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 교회는 가장 먼저,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리와 성경 중심으로 함께 참된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대한 일이며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신앙의 경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때까지 신앙자들이 쇼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선 곳이 다함이 없는 축복의 샘이라는 것을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위치를 차지하듯이 목사와 교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성립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요 6:44)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시간 여러분을 오렌지파크 한인 장로교회로

인도하시려 하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구원의 모범이 되셨듯이 목사 또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큰 축복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잠 16:9). 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통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입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도록 말씀을 넣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보게 됨과 같이 여러분의 간구에 의하여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걸음을 옮기기까지 고민과 주저함이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특정한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성경에 묻혀오던 진리들을 발견하여 탁월하고 지고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곳에서 만들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신부된 여러분과의 이 만남을 생각하며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020년 1월 13일 오렌지 파크 한인 장로교회 곽 경수 목사.